

“동학혁명 역사 왜곡한 ‘전라도천년사’ 폐기하라”

24억 투입 34권 역사집...기념사업회 등 시민사회단체 책자 폐기 촉구 봉기 시기·진원지 달라...민군과 고부민군 용어 사용 등 사료 오독 주장

동학의 후예들이 편찬 공개가 연기중인 '전라도 천년사'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동학학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고부관아복원추진위, 김개남장군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정읍 및 서울지역의 동학 관련 단체와 정읍시의회, 임승식·염영선 전북도의원 등은 최근 한 자리에 모여 "역사 왜곡으로 오염된 전라도천년사를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라도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편찬한 전라도천년사에 동학농민혁명 역사를 심각히 왜곡한 사실이 발견돼 비판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 전라도 무장과 충청도 청산, 경상도 진주 등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했지만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됐고 청산·진주 등의 봉기는 관련 사료가 없으며 집필자의 사료 오독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또 동학농민혁명의 전사(前史)는 1893년 11월에 일어난 '사발동문' 모의 단계 및 모의의 실행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1894년 1월10일에 일어난 고부농민봉기 단계까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고부농민봉기가 사실임에도 집필자는 전사(前史)라는 표현으로 본질을 왜곡·편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군, 고부민군"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민군은 농민군을 탄압했던 민보군을 의미하며, 통용되는 역사용어가 아니므로 '농민군'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봉승 동학농민계승사업회 이사장은 "심각하게 왜곡 서술·기술된 '전라도천년사'의 동학농민혁명 역사를 폐기하고 새로운 집필진을 구성해 온전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면서 "전북도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시가 공동 추진하는 기념사업이다. 총 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전체 34권(편찬에는 통사 29권, 자료집 4권, 총서 1권)으로 구성돼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전라도천년사' 고부봉기 오류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짚와이어 타고 즐기는 '정읍 구절초지방정원'

8월까지 시범운영...9월부터 유료

정읍 구절초지방정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아찔한 스릴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설치됐다.

정읍시는 도내 유일의 지방정원인 구절초지방정원에 산악형 어드벤처 놀이시설인 '짚와이어'가 설치됐다며 23일부터 8월31일까지 무료이용이 가능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짚와이어는 구절초지방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부치봉(260m) 정상에 출발해 추령전과 잔디광장을 가로질러 정원의 중앙으로 도착한다. 총길이는 550m로 2개의 라인이 구성됐다.

시는 8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9월부터 이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정기휴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휴장한다.

시는 무료운영에 앞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직원을 공개 채용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과 장비 및 시설운영 교육, 안전과 응급구조 교육까지 마쳤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짚와이어가 설치됨에 따라



정읍 구절초지방정원 풍경과 스릴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짚와이어. <정읍시 제공>

구절초지방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스릴과 재미가 더해졌다"며 "매년 10월 초에 열리는 구절초 축제 기간에 많은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절제된 점점과 보안, 안전 강화로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드론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

농업용 16대 읍면 배치...논·밭·과수원에 비료 등 살포

고창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14개 읍면에 농업용 드론을 지원한다.

고창군은 올해 5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업용 드론 16대를 각 읍면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마을단위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 10대,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5대, 발작물 방제지원 1대 등이다

농업용 드론은 대규모 벼와 발작물, 사료작물, 과수원 등의 비료와 제초제 살포에 사용된다. 또

작물의 생육상태확인 등에 활용돼 높은 경명비(인건비)와 노동시간 절감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군은 '농업용 드론 활용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농업드론자격' 취득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36개 농가가 드론자격을 취득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병해충 적기방제, 청년농업인의 사업역량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전북교육청, 자기주도 'IB교육' 도입 추진

미래준비학교 중 2곳 준비학교 운영...5월 중 의향서 체결

전북도교육청이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전북도교육청은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스위스 비영리교육재단인 IBO와 의향서 협의 및 체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IB교육은 IBO가 개발·운영하고 있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지난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지구 주재원 자녀 등 외교관 자녀들이나 해외 주재 상사원자녀들을 위해 시작됐다. 어느 한 국가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는 않으나 교를 안정적으로 다닐 수 없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 해보자는 취지다.

이후 교육청 가치가 인정받으며 올해 기준 159개국 5725개교가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대구와 제주가 도입을 시작한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되고 있다.

IB교육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 학습, 논·서술형 평가를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 추구가 핵심이다.

도 교육청은 IB 프로그램을 공교육에 적용, 교육혁신을 통한 교사 및 학생 역량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미 전북미래준비학교 가운데 이리모현초와 화산중학교 2곳을 IB 준비학교로 운영 중이다.

5월 의향서와 협의각서 체결이 이뤄지면 관심학교로 인증을 받게 된다. 관심학교부터는 IBO로부터 관리지도도를 받게 된다.

이후 도 교육청은 관심학교 내실화를 통해 향후 후보학교, 인증학교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TF 구성·운영,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 교육전문직 연수, 교원 연수, 교사 연구회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산불예방·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7월까지 940ha 조림지 풀베기·250ha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남원시가 지역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조림목일 건전한 생육을 위해 오는 7월까지 940ha의 조림지 풀베기사업과 250ha의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숲가꾸기사업은 미래에 유용한 나무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형질 우량목으로 생산하고자 방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산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산림의 탄소흡수량 증가와

산림경관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남원시는 지난 4월부터 산불예방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생활권 환경개선 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산불예방사업 60ha, 공기 숲가꾸기 33ha, 큰나무가꾸기 30ha 등 각종 산림사업을 시행 중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잦은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아름다운 숲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062-464-3466